

I. 경제동향

1. 실물경제

□ 글로벌동향

- 2016년 4/4분기중 미국 및 일본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유로지역과 중국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
-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미국, 유로지역 및 중국에서 오름세가 확대

□ 국내동향

- 국내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

2. 통화정책

□ 글로벌동향

- 2016년 4/4분기중 유럽 및 일본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 반면 미국은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차별화
- 2017년 1/4분기중 중국은 금리인상을 단행

□ 국내동향

-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이후 기준금리를 1.25%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,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2017년중 동결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

3. 자금흐름

□ 글로벌동향

- 2016년 상반기 글로벌 자금유입은 선진국, 신흥국 모두 소폭 증가세로 전환
-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국가간 은행자금 이동은 2016년 이후 소폭 증가
- 2016년 하반기 글로벌 펀드자금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,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흐름이 변화

□ 국내동향

- 2016년 3/4분기 국내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대비 감소로 전환
- 조달원천별로는 장기차입금과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회사채 조달규모는 감소

4. 외환시장

□ 글로벌동향

- 2016년 하반기 미달러화 가치는 미 금리인상 기대,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금년초에는 약세로 반전
- 미 대선 이후 미국채금리 상승 및 정책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통화가치는 큰 폭으로 절하
- 선진국 및 신흥국 통화의 내재변동성은 대체로 안정세

□ 국내동향

- 원화는 2016년 하반기 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다 금년들어서는 강세로 반전

II. 자본시장동향

1. 주식시장

□ 글로벌동향

- 2016년 4/4분기 글로벌 주가지수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하락세를 유지하다 분기말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반등
- 2016년 4/4분기 선진시장의 주가자산비율(PBR)과 주가이익율(PER)은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신흥시장은 하락

□ 국내동향

- 2016년 4/4분기 국내 주식시장은 정치적 불안정, 달러강세 등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전분기대비 약화되었으며,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세가 둔화

2. 채권시장

□ 글로벌동향

- 2016년 3/4분기 주요국 국채 및 회사채 발행규모는 전분기대비 소폭 확대
- 2016년 4/4분기 선진국 국채금리는 미국 대선 이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ECB Tapering의 영향으로 상승

□ 국내동향

- 2016년 4/4분기 국내 채권 발행시장은 국채와 통안채를 중심으로 발행규모가 감소하였으나, ABS 발행규모는 2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
- 국내 채권금리는 국고채 금리가 전분기말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, 특히 장기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하며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

3. 파생상품시장

□ 글로벌동향

- 글로벌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2016년 4/4분기 미국의 대선 이후 글로벌 증시 회복으로 인한 변동성 감소로 전분기대비 5% 가량 감소
-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명목금액은 달러 외 기타 통화가치의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 2016년 상반기중 전년 하반기 대비 10% 증가

□ 국내동향

- 국내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2012년부터 진행된 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강화로 인하여 국내 코스피200 선물·옵션의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
- 2016년말 ELS 발행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 등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조기상환 증가로 발행잔액은 소폭 감소

III. 금융투자업동향

1. 증권산업

□ 글로벌동향

- 2016년 3/4분기중 글로벌 투자은행의 IB부문 수수료수익은 채권 수요증대에 힘입어 전년동기 및 전분기대비 증가
- 2016년 3/4분기중 상위 5대 글로벌 투자은행 영업수익은 전분기에 이어 증가

□ 국내동향

- 2016년 3/4분기말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부채 축소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감소
- 2016년 3/4분기중 순영업수익과 영업이익 및 판매관리비는 모두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며, 부문별로는 위탁매매와 투자은행, 자산관리 부문의 순수익 축소

2. 자산운용산업

□ 글로벌동향

- 전세계 공모펀드 순자산은 2016년 3/4분기말 현재 34.0조달러로 전분기대비 3.3% 증가
- 공모펀드 자금은 2016년 3/4분기중 전 지역에서 순유입을 기록하며 2,805억달러 증가
- 공모펀드 순자산 상위 10개 국가의 규모는 30조 320억달러로 전분기대비 3.1% 증가

□ 국내동향

- 국내자산운용시장은 2016년 4/4분기말 현재 953.5조원으로 전분기대비 0.3% 감소
- 사모펀드와 투자일임시장은 각각 2.6%, 0.4% 증가한 반면, 공모펀드시장은 5.3% 축소
- 펀드시장 내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0.3%p 하락한 25.1%를 기록
- 2016년 3/4분기 자산운용사의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1.9% 감소한 1,899억원을 기록

3. 헤지펀드

□ 글로벌동향

-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규모는 2016년 9월말 기준 2.972조달러로 대규모 자금이탈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
- 2016년 상반기 이후 Multi 전략과 Relative Value 전략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된 반면 CTA 및 Credit 전략에 대한 신규투자는 증가
- 투자수요 측면에서는 헤지펀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투자자, 재간접헤지펀드 및 패밀리오피스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
- 지역별로는 2016년 상반기에도 홍콩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·태평양 지역 헤지펀드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

□ 국내동향

- 국내 헤지펀드 시장규모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급성장하여 2016년 12월말 현재 6.6조원(250개 펀드, 설정액 기준) 수준을 기록

- 2016년 들어 헤지펀드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1년 동안 총 204개의 펀드가 설립되었으나, 4/4분기 들어 설정액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상황
- 투자전략을 기준으로 보면 펀더멘탈(40%)과 멀티 전략(34%)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,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를 보면 멀티 전략과 Fixed Income Arbitrage 전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

4. 벤처캐피탈 및 PE

□ 글로벌동향

- 2016년 글로벌 벤처캐피탈/PE의 자금모집은 대체투자에 대한 수요 지속으로 증가세를 기록
- 글로벌 벤처캐피탈/PE의 신규투자 및 회수 실적은 글로벌 경제 및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축
- 2016년 미국 벤처캐피탈의 자금모집은 증가하였으나 미국 대선 및 IPO시장 침체로 벤처투자 및 회수시장 모두 위축
- 미국 PE의 자금모집 및 신규투자는 보수적인 운용전략 및 PE간 경쟁심화 현상 등으로 소폭 감소

□ 국내동향

- 2016년 벤처캐피탈 자금모집과 신규투자 모두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
- 2016년 회수시장에서 코스닥 IPO와 M&A를 통한 회수 비중의 격차는 축소
- 2016년 코스닥 IPO는 국내외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공모시장 침체로 감소세
- 2016년 PEF 자금모집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며 회수시장은 침체

5. M&A 및 IPO

□ 글로벌동향

- 2016년 4/4분기중 글로벌 M&A시장 규모는 초대형거래 발표로 인하여 전분기대비 증가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실적치인 전년동기 수준에 육박

- 2016년 4/4분기중 글로벌 IPO시장은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아시아의 선전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증가

□ 국내동향

- 2016년 4/4분기중 국내 M&A시장 규모는 1건의 초대형 In-Out 국경간 M&A거래가 시장을 견인하며 2015년 3/4분기 이후의 부진에서 반등
- 2016년 4/4분기중 국내 IPO시장 규모는 2010년 3/4분기 이후 최고 수준 기록